

광양시 도심공원 8곳 환경개선 박차

개선사업 예산 32억원 확보

노후시설 교체·맨발 산책로 조성 어린이 물놀이·목재 놀이터 설치

광양시가 마동 생태호수공원 등 도심공원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시민이 감동하는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2024년 도심공원 8곳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노후화된 공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진상 백학 및 옥곡 공원 노후 시설개선 1억원 ▲마동 현충탑공원 1억원 ▲마동 생태호수공원 3억 5000만원 ▲중동근린공원 8억원 ▲영광 1 어린이공원 5000만원 ▲우산 공원 2억 2000만원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할 계획으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양시가 시민이 감동하는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도심공원 8곳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산책로 모습. <광양시 제공>

한 정비해 도심 공간 속에서 녹색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시는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어린이 물놀이터와 친환경 목재 놀이터 등 특색 있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장애 도시 숲 조성 공사를 추진해 보행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김재신 광양시 공원과장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녹색공간 도심공원 정비에 최선을 다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곡성·광양·하동 4개 지자체 섬진강권 관광행사 '봄맞이 챌린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섬진강을 둘러싼 구례와 곡성, 광양, 하동 등 4개 지자체가 연계 관광 행사를 연다.

구례군은 섬진강권 통합 관광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권 4개 지자체가 '캐시워크 섬진강 봄맞이 챌린지'를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섬진강권 4개 봄꽃축제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꽃, 하동 벚꽃, 곡성 장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4개 시·군 12개 관광명소를 방문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된다.

방문 개소 수에 따라 차수별로 총 250만 포인트가 나눠진다.

행사 참여는 건강관리 모바일 앱인 '캐시워크' 팀워크 도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차 행사는 이달 8일부터 4월7일까지, 2차 오는 4월29일부터 5월26일까지 진행한다. 구례지역 1차 행사 장소는 산수유문화관, 지리산역사문화관,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등 세 곳이다.

한편 섬진강권 4개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13개 관광명소에 대한 연계 할인제를 펼치고 있다.

4개 지자체 주민이 할인 대상지 영수증을 가지고 30일 이내에 다른 할인 대상지를 찾아가면 이영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례에서는 구례수목원, 지리산역사문화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압화전시관 등의 입장료가 반값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농업인학습단체 80여 명이 선사유적공원 도시농업공간에서 구절초 2만6000그루를 심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선사유적공원에 구절초 대량 식재

2만6000그루 심어... 10월 만개

여수시 선사유적공원 도시농업공간에 구절초 2만6000그루를 심어 오는 10월 초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여수시 농업인학습단체는 지난 7일 선사유적공원 도시농업공간에 구절초 2만6000그루를 추가로 심었다고 10일 밝혔다.

'선사유적공원 도시농업공간'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20년 조성했다. 유채꽃과 메밀꽃 등 꽃단지와 농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농업인학습단체 80여 명은 구절초 단지 1000㎡에 구절초 2만6000그루를 추가로 심었다. 구절초는 10월 초 만개할 예정이다. 구절초 식재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도시농업연구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미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팀장은 "이곳 도시농업공간에서는 보리와 메밀, 다양한 꽃들이 커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며 "농업인 단체가 한 해 6차례 이상 봉사활동으로 가꾸는 공간이 많은 이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구례군 철거 갈등 서시교 개축 간담회

전문가 대안 마련 익산청 제출

집중호우 수해를 입은 구례 서시교 철거 여부를 두고 시행청과 주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일보 2024년 3월4일자 14면> 김순호 구례군수와 서시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창승) 위원, 마을 이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시교 개축 공사 설계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서시교대책위원회 측이 전문가를 선정해 서시교 개축 공사와 관련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구례군은 서시교대책위원회 측에서 내놓은 안을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 전달하고, 익산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기로 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익산청이 진행한 서시교 개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위법성과 계획홍수위 산정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논란도 제기돼 전문가에 의뢰해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도 서시교 개축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익산청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시교대책위원회가 어떤 전문가와 어떻게 논의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지, 또 시행청에서 이를 어디까지 받아 드릴지 미지수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시교 개축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계 시한은 오는 7월6일까지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공영민(오른쪽 두 번째) 고흥군수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4)에서 고흥 유자 등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유자 세계인의 건강음료 됐다

지난해 4534만 달러 수출

고흥 유자가 세계인의 건강음료로 부상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유자를 '프리미엄 유자'로 격상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를 단장으로 한 수출개척단은 지난해 중국, 미국 등지에 유자 가공품 4534만달러(598억4000만원)를 수출해 전남도 군 단위 최초로 농수산물 수출액 1억3000만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2일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고흥산 유자 음료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원로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보내는 명절 선물로 고흥산 유자청이 포함돼 고흥 유자의 품격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고흥산 유자차, 고흥산 유자 에이드 등 유자 음료는 상큼하고 건강한 맛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아 도시 유명 카페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 등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1월 초에는 고흥 유자를 소재로 한 유자축제가 열리는데 그날은 유자밭에서 데이트도 즐기고 유자 생과를 산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고흥 유자는 온화한 기후, 사시사철 불어오는 해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조량을 자랑하며, 지리적 표시 제14호로 등록돼 있다.

또 최근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일본 시장 수출개척단'은 일본 '2024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4)에 참가해 고흥 유자 등 특산품을 홍보했다.

올해 49회를 맞은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60개국 25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박람회다. 공 군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후지 TV와 인터뷰를 하며 고흥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3월호

2024년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특집

맛과 함께
남도 여행
담양 여행

대숲체험
예술충전
용마루길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①
'작은 네모' 속의 설렘
담양유표박물관

호남의 누정②-광주 최가정
충장공 김덕령의
의와 충이 깃든 누정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손레기 '번두리와 언저리'③
조선대, 문병란 시인과 이철규 열사

시인의 흥 읽는 도시문화학자 김시덕

"낮설게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예향 40주년, 남도투어③

전남의 골목 여행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라틴어 인생 문장의 작가 한동일
화가로 변신한 배우 박신양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④
대구에서 LA 들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공명하는 화가, 곽훈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돈 되는 한국 시장 직접 노렸다
미드 '성난 사람들' 뜬 비결